

Tim Gombis 박사 , 갈라디아서, 세션 8, 갈라디아서 6:1-18

© 2024 팀 고펜스 (Tim Gombis)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갈라디아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Tim Gombis 박사입니다 . 8회차 갈라디아서 6장 1-18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의 모든 신학적 논증, 개인적인 권고, 신학적 논증의 엮음, 개인적인 권고를 마친 후에 몇 가지 마지막 권고를 하는 편지의 끝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으니 바울이 다시 청중을 향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누구든지 무슨 죄에 빠졌더라도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회복하고 각각 자기를 돌아보아 , 당신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와 같은 권고조차도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사도로서 바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수사적 상황의 관점에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실용적인 지향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상황에든 적용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원래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읽어 보십시오. 바울은 영적인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기독교인과 초영적 엘리트 사이에 가정할 수 있는 종류의 구별이 아닙니다

이는 누구든지 이 영계에 있는 자, 저 영계에 있는 누구든지 그 상황에 뛰어들어 그런 사람을 복귀시키는 것이니 너희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영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권면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범위를 생각해보면 바울이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회복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전 다이어그램을 생각하는 사람, 즉 배타적인 그룹으로 돌아가야 하며 더 넓은 범위, 즉 다민족과 교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 다국적 사람들은 이전에 죄인으로 간주되었던 사람들과 나란히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가르침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너희는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되 표적을 삼거나 뒤쫓거나 궁지에 몰리지 말고 오직 온유한 심령으로 회복시키며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유혹은 다시 가르침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유혹은 여러분이 반대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서 분노하거나 참여하려는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힘이나 강압에 의해. 다시 한번 바울은 그러한 모든 행동, 강압, 강압, 지배, 정죄를 다른 사람을 향한 자세로 보고 나쁜 열매만 맺을 뿐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바울의 법칙입니다.

현 악시대의 수단으로는 새로운 창조결과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회유하거나 강요함으로써 실제로 사람들을 새로운 창조 행위로 몰아가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드러운 호소력, 부드러운 호소력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부드러운 호소력을 힘 부족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온유함과 회복, 십자가 모양의 존재와 포용성에 절대적으로 헌신할 수 있으며, 적절한 포용성과 용기, 타협할 수 없는 담대함, 현실이 타협할 수 없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곳에서 부패한 요소가 될 경우, 교회의 리더십을 맡은 사람들은 그 현실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기반으로 그렇게 하도록 용감하고, 다정하고, 온화하지만 끈질기게 요구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을 배제하지 않고, 올바른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부적절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새로운 창조의 척추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뒷받침하는 것은 우리 역시 높여지신 그리스도에 의해 주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뒷받침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우리가 화를 낼 것이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 창조의 현실에 대한 믿음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어떤 종류의 보복 모드에도 이끌리지 않고 그러한 사람을 회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2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이러한 맥락으로, 서로의 짐을 지라고 권면합니다. 즉, 서로 인내하고 서로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이 용어는 모세의 율법과 반대되는 별도의 법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이 더 이상 신자에게 어떤 권리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도 토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 읽혀집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갈라디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신 대로 율법과 관련되어 있으며, 율법을 성경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 참고할 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율법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국가 헌장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식단, 달력, 전체적인 생활 방식을 결정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온 선교사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 율법이 그들에게도 국가 헌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모세 율법이 잘못 해석되고 잘못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대로 율법과 관련되어 있으며, 율법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시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4절부터 4절과 5절까지 바울의 권고를 이어가면서 바울은 5절에서 2절에서 말한 것과 약간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2절에서 그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5절에서는 각 사람이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

그렇다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4절에서 바울은 청중에게 각자 자신의 일을 검토해야 함을 알립니다. 즉, 각 사람은 자신이 공동체 생활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공동체에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우 조심스럽고 자기 성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면 그들이 실제로 참으로 새 창조 백성의 일부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 각 사람이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다. 공동체의 각 사람은 종말론적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진정으로 새 창조의 일부인지, 아니면 현 악한 시대의 구성 요소인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공동체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에 따른 것인지 끊임없이 자기 성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인들이 서로의 짐을 져야 하는 동시에 각자가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진술을 조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과 서로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바울이 속이지 말라는 권고 를 많이 덧붙입니다 .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관하십니다. 그는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공동체의 모든 사람은 공동체에서의 행동에 따라 종말론적인 보상이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썩어짐을 거둘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따라서 행동을 심고 이 영역에 투자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고, 지역사회에 투자하고, 기업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권적으로 감독하고 계십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 번 구원받았고 항상 구원받았지만 과거의 회심 사건으로부터 구원을 완전히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내가 기독교 여행을 시작한다면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약성서 작가들, 그리고 정말로 모든 여행하는 선교사들과 활동자들에게 중요한 날은 끝입니다. 마지막 날. 내가 시작했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하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Paul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삶을 엮어가는 곳이 어디든, 공동체가 자신을 헌신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 목적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폴린의 현실이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구원의 그림의 한 부분, 즉 회심의 순간에 진을 치고 거기서부터 구원의 신학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그림의 다른 측면, 즉 회심의 순간을 놓쳤습니다. 인내의 필요성과 우리의 삶이 어디에 투자되었는지,

우리 공동체가 어디에 투자되었는지 평가할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시며, 이는 공동체가 공동체 생활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판단을 내리도록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지향하는가? 현대악 시대 지향적인가? 그리고 이것이 둘 중 하나라면 무엇을 변경해야 하며 무엇을 유지해야 합니까? 우리가 11절에서 이러한 메모 중 하나를 얻었음을 주목하십시오. 바울의 다른 한두 편지에서 그는 실제로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바울의 편지는 거의 받아쓰기로 되어 있었지만 6장 11절의 마지막 메모에서 내가 직접 여러분에게 쓴 글자가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이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받아쓰게 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편지의 끝 부분에서 실제로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의 받아쓰기를 받아 적은 서기나 비서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종종 이 편지의 끝 부분에 바울이 서명하거나 자신의 메시지를 쓸 메모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글을 쓰는 것은 그가 정규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다 . 이것은 현대인들이 인식하기에는 다소 특이한 일이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읽고 쓰는 능력이 극도로 낮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읽을 필요는 없었으므로 읽고 쓸 수 있으면 알려졌습니다.

글을 쓸 수 있으면 서기관이라고 불렸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몇 가지 내용을 적을 수 있고 Paul은 자신의 이름을 한 문장 정도 쓸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가 마지막 메모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른 바울 서신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실제로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은 꽤 재미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성경 퀴즈를 하고 싶다면, 가장 재미있는 것 중 하나는 누가 로마서를 썼는지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6장에서 Tertius

가 명시적으로 말하기를, 나 Tertius가 이 편지를 썼고, 그가 받아쓰기를 취소한 사람임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누가 이 편지를 가져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다소 슬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누구였든 갈라디아 청중만큼 시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Paul은 너무 흥분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문장을 작성할 수 없을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문법적 중단이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있었던 불타오르는 상태를 나타내는 엉망진창일 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1세기 초반의 편지 구성에 대해 약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선동자들의 전복적인 동기를 다시 지적합니다. 여기서 그는 기본적으로 이 선교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동료들에게 좋게 보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육체로 선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자들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하나의 새로운 다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십시오.

하지만 이 유대인 선교사들은 당신의 육체를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일종의 다양한 방식으로 또는 적어도 모호한 방식으로 육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할례, 포피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든 방식도 의미합니다. 정체성을 평가하는 이러한 육체적인 방식에 기초한 새로운 정체성.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전의 이교도 공동체를 막 개종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거기에 있었던 후에도 우리는 그들을 올바른 유대인 공동체로 개종시켰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노년의 자랑이 될 것이며, 바울의 상상에 따르면 그것은 현 악한 시대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13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물에 대한 개념은 로마서 2장과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율법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에 당신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 이 될 수도 있고 율법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당신이 비유대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율법에 속한 자나 율법을 듣는 자나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로서 율법을 범하는 자일 수도 있으니 13절에서 율법을 분류한 자니라 .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자기 육체의 자랑을 위함이라 바울은 이것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기느니라.

반면에 바울은 근본적으로 다른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삶의 많은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임신한 개념인 십자가형 개념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의 자랑은 근본적으로 대안적입니다. 특히 빌립보서 3장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의 이전 자랑, 즉 바리새인 정체성을 자랑하고, 유대인 정체성을 자랑하고, 업적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자랑한 것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 폴에게는 이전에 그가 그랬습니다.

이제 그는 전혀 다른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가 그에게 역사한 것은 강력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세상에. 그러므로 바울은 절대적인 부끄러움의 상징인 십자가를 계속 자랑할 것입니다.

제국주의 사형의 상징이다. 상실의 상징입니다. 약함의 상징입니다.

지배당한다는 상징이다. 심판을 받을 징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상징인데, 바울은 그것을 모두 포용하는 것인데, 그것이 새 피조물을 창조한 장치였고, 그것이 바울을 이 낡은 세상에서 새 세상으로 인도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으로 나팔을 부를 것 입니다 .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자유롭게 해 주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료 신자들과 하나로 묶어 주고, 생명을 주는 현실로 그를 데려갔으며, 이는 그를 궁극적인 부활을 향한 궤도에 올려 놓았고, 하나님 왕국의 충만함이 도래할 때 새 창조에 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전에 그가 자랑했던 모든 자랑은 결국 그에게 정죄를 보장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에게 멸망을 보장했을 뿐이며, 그가 현재의 부활 생명 경험에서 끊어지는 것을 보장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육신의 눈에는 단지 고통, 불편함, 수치심, 나약함, 굴욕 등을 상징할 뿐이지만 궁극적으로 약속된 현실입니다. 바울신학의 경이로움.

십자가에 가까울수록 나는 부활의 능력에 더 가까워집니다. 내가 고통과 굴욕과 괴로움을 피하려고 노력할수록 실제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십자가는 그의 자랑이요, 옛 세상에 대하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세상에 대하여는 살아나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할례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뿐이니라.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그의 삶을 새로운 창조를 지향하는 바울의 근본적인 확신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오래된 구별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성별, 민족,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 생명의 새로운 맥락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단순히 마무리의 미묘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5:16에서 그 내용을 봅니다. 미안해요, 5:6. 우리는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 을 기다리느니라. 나는 이것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 미안해요. 5:6 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니라 6장 15절에 그 내용이 반복되어 있느니라. 할레나 무할레나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 창조뿐이니라.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다음 구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정경, 규칙,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규칙입니다 . 이것은 일종의... 당신은 새로운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이 새로운 법은 이것이다. 당신의 민족적 정체성, 이 오래된 세계 전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목회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모임의 모든 사람이 자기희생적인 사랑, 자기 증여, 봉사의 삶을 통해 완전하고 열매를 맺도록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절대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열의 태도가 있는 곳에, 불만족과 만족의 부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우리 교회의 분파주의나 불화, 하위 집단으로의 분열의 태도가 있는 곳, 그것은 단지 교회의 불행한 발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발전이다. 그것은 새 창조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방사능이 가장 높은 것에 따라 죄의 순위를 매기고 이것이 경고음을 울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권징을 시작하게 될 곳이지만, 이는 교회의 우선권과 일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새로운 창조,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이 메모는 평화와 자비가 그 사람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진술은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연관시키려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모든 것에 관한 모든 신학적 논쟁에서 일종의 도피처로 돌아가면, 바울이 실제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이 꽤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단지 일종의 이방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이스라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피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비유대인인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실제로 받아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부르느니라.

믿음 안에 있는 이방인은 기독교인, 터키 기독교인, 시리아 기독교인, 로마 기독교인, 이집트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유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백성의 일부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적인 백성은 실제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주장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마무리 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부터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낙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곳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보여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그의 몸에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편지의 결말은 좀 웃기네요.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갑자기 닫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느니라. 아멘.
누가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와는 달리 누가 그것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한 칭찬이 없습니다. 빌레몬처럼 마치는 인사말은 없고, 심지어 몇 구절의 맺는 인사말도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마치는 인사의 장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새 창조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본 그의 여러 교회가 현재 악한 시대의 역동성과 규모로 인해 뒤로 물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속상하고 매우 불안한 사도가 쓴 것 같습니다. 파괴가 가능하며 이는 절대적인 비극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바울의 신학을 위해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나오는 몇 가지 마지막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나도 이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바울과 유대교에 관해 바울은 유대인이고, 철저히 유대인이며,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변명하지 않으며, 그의 신학에 관해서는 유대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것은 유대 민족의 순수성을 추구하는 유대 민족 내의 하위 집단인 마카베오 유대교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실제로 유대교에 대한 견해가 전혀 없는데, 이는 그의 편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견해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차별점이다. 하나님의 새 창조 백성 중에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하나님의 새 창조 백성 안으로 인도되기를 원하는 외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과 신약을 반드시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때 신약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에게 성경은 구약일 뿐이었다. 인용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으로 남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예수께

순종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새 창조 백성 가운데 열매를 맺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스라엘 특유의 요소를 받아들이지는 않음을 의미합니다. 모세 율법의 내용. 나는 그것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련을 맺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경전 외에 그분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경전이지만 유대인을 위한 것과 같은 일종의 국가 헌장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 구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은 비유대인으로서 여전히 율법 준수자가 될 수 있지만, 바울의 생각에도 일부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율법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적 적용에 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모든 문화, 어떤 문화를 매우 잘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 기독교인이고, 우리 문화, 정치, 교파,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족주의를 인식하는 것이 미국 교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동쪽에서 왔나요, 아니면 서쪽에서 왔나요? 당신은 북쪽에서 왔나요, 아니면 남쪽에서 왔나요? 당신은 공화당인가요, 민주당인가요, 보수인가요, 진보인가요? 어떤 종류의 사상 학파나 교단 소속, 정당 소속이 무엇이든, 우리 문화에서 이러한 차이점을 인식하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을 서로 적대시하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것들이 적대감이나 갈등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미국인이더라도 이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나의 근본적인 정체성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미국인으로서의 가장 좋은 부분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미국인들에게 속해 있는 것보다 더 친밀하고 강렬하게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속해 있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의 일부입니다 .

나는 달력을 좋아한다. 나는 우리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나는 미국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인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끌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복잡한지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끌린 사람으로서 나의 근본적인 정체성에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정체성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식,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 다른 사람들을 보는 방식에서 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언제나 복잡한 현실이겠지만, 바울처럼 나도 십자가에 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교회는 십자가에 그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훨씬 더 형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바울의 목시적인 비전이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에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즉 바울은 시대의 교차와 우주적 갈등의 장소 사이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나는 개인적 태도와 행동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자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육체의 영향을 받는 관계와 커뮤니티 역학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부활 생명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원하시는지까지 공동체 역학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바울 신학을 통해 생각하는 렌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회적 상황과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렌즈가 되었으며, 이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글쎄, 나는 갈라디아서에 대한 이 연구가 당신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주의 깊게 읽고, 철저하게 읽고, 즐기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원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Tim Gombis 박사입니다 . 8회차 갈라디아서 6장 1-18절입니다.